

노지문화 보존 및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활동하는
노지문화 생태예술가

김 은 희

김은희

넙빌레가 있는 마을에서 10년간 살며 발견한 넙빌레의 생태와 노지문화를 예술가로서 바라보고 춤으로 담아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화를 지켜내고자 한다. 넙빌레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주는 정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정서적 환기를 느끼게 해주는 감정을 춤으로 담아보고자 한다.

활 동 명 : 물허벅춤 안무노트

대 상 :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지역 용천수(넙빌레)

결 과 물 : 무용(사진일지로 되어진 안무노트)

기 록 : <https://youtu.be/CH2sM6qOakU>

1. 그간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제주도가 고향인 저는 19살 때 서울로 올라갔고 20년간의 육지 생활을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제주에 온 지 10년째입니다. 넙빌레 앞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지도 10년이 되어가네요. 그간 한국무용협회서귀포지부장과 제주도립무용단운영위원, 문예회관운영위원을 맡아왔고 여러 무용공연의 안무, 연출, 기획 및 출연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자연에서 릴렉스한 상태로 관람하는 소풍 컨셉의 무용공연 춤소풍을 연출하고 직접 출연하였으며 서귀포시 공간네트워킹사업으로 하멘프로젝트를 결성하여 치유예술공간 넙빌레의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올레축제 기간 동안 제주올레와 협업하여 ‘잠깐 멈추고 쉼’이라는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3. 작가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지역의 노지문화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태대상지로 선택한 장소는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위치한 넙빌레입니다. 넙빌레는 용천수가 나는 곳으로 그곳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화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목욕문화와 이를 둘러싼 놀이문화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넙빌레는 물이 많이 빠져나가는 시기에 빌레가 드러나면 먼바다까지 나간 사람들이 그곳의 다양한 생물을 수확하는 모습과 빌레 위 갯바위 낚시 그리고 해녀들의 물질까지 다양한 어업문화를 보여줍니다. 저에게 넙빌레는 끊임없이 인간과 자연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노지문화공간입니다.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로 만들어진 방호벽과 인위적으로 만든 탕은 파도에 의해 매년 깎이고 부서져 끊임없이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게 합니다. 주어진 자연 그 자체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넙빌레를 더는 인간 중심적인 개발행위로 파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4. 작가님이 바라는 노지문화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간과 자연을 대등하게 바라보고 인간도 넙빌레의 모든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자연 안에서 파괴 없이 자연을 함께 공유하길 원합니다. 예술은 사회에 대한 정보를 담고 반영합니다. 춤은 직접 시대와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저변에 흐르는 보편적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서로 조우하여 함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주의 자연에서 발생한 생태노지문화의 방향성에 관심을 두고 춤에 반영해 보고 싶습니다.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평평한 빌레와 깨끗한 용천수 덕분에 넙빌레에는 예로부터 독특한 목욕문화, 놀이문화, 어업문화 등과 같은 노지문화의 형성이 가능했습니다. 넙빌레는 주민들에게 추억의 장소이자 향유의 장소이고 나아가 물과 음식을 제공해주는 자연 산물의 보고입니다. 넙빌레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주는 정서가 나에게 일상을 살아가는데 정서적 환기를 느끼게 해주어 그런 감정을 춤으로 담아보고자 합니다. 넙빌레의 생태리서치를 기반으로 스토리텔링하여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게 목표입니다.

현장

현장 답사 및 인터뷰 (사진 출처: 스튜디오 sssstudio)

넙빌레



넙빌레 여탕



넙빌레 남탕





